

금요 수필

누룽지



최 병 진
수필가

맹물에 잡혀 휘돌린다. 두리퉁실한 조각이 떠서 흔들린다. 시커먼 무쇠 바위에 누워 갇은 시련 겪고, 강발라서 탄력과 윤기가 없다. 구수한 향기는 풍기지도 않는다. 부드러운음은 없고 딱딱하지만 내 눈을 붙잡는다. 물속에서 부풀어진 조각들은 산산이 방황도 없이 흩어지면서 뱅글뱅글 오르락내리락한다. 끓는 불에서 서서히 부풀어 오른다. 백 도가 넘는 수증에 조각이 찢어지거나 벗겨지기도 그 수난을 겪으며 응축된 것을 뉘그러이 흩어낸다. 지닌 불기마지 햇빛과 실바람에 날려 버리고 찰흙처럼 단단하다. 그게 편편 굵은 불에 내려앉을 여유도 없이 조각이 떠올랐다. 그것도 작사다. 역기에 성난 불은 소리를 내며 요동친다. 그 바람에 소용돌이 속에 중심을 잃고 윤곽이 흐물흐물함을 잃었다. 그동안 단단한 고집마저 서서히 풀리면서 진기마저 분말처럼 풀렸다. 밥알은 버 이삭이다. 그 버가 버린 가까이 두논에서 따가운 해를 바라보고 초록빛 몸을 키웠다. 장마철 폭우와 광풍이 물려온다. 그 버는 부러지고 쓰러지던 그만이란 절망을 잊고, 서로 기대며 버틴다. 버는 유연하게 비바람을 스쳐 지나게 했다. 두논에는 개구리밥, 개구리, 우렁이, 미꾸라지, 메뚜기, 백로, 딱부기, 왜가리 함께 하거나. 가끔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버포기 사이 헤집고 다닌 울렁이, 미꾸라지, 우렁이, 뚝방개 등이 있는 세상이다. 그 위에 산생과

경쟁의 작은 우주가 있다. 농축 하늘에 해가 뜨면서 버 이삭이 짙은 녹색에 진결하게 퍼라를 내밀고 보란 듯이 패기 단반하여 고개를 뽐뽐하게 쳐들고 있다. 황새가 우짖는다. '아직 속정이야! 먹을 게 없어.' 부리 입질을 막아 보려고 깨달까 유하 껍질을 지녀도 쿡쿡 쪼아댄다. 이삭이 고개를 숙이기도 한다. 두서워서 가슴 속이 터 보냈다. 파란 하늘에 새턴구름 한 조각 살짝 해를 숨긴 허공에 소쩍새 '속속다' 울음이 퍼진다. 그 소리에 귀 세우는 초록빛 들판, 그 울림이 버알이 짹짹 한 종년 가였다. 석양에 잔 그림자 깎게 누울 때 황거미도 찾아온다. 참새도 어둠을 피해 보금자리로 들어간다. 한숨을 돌리고 얻은 고개를 숙이는 날을 속절없이 기다린다. 바람도 잠이든 까만 밤에 이슬이 이삭에 맺고 있다. 고스넌한 밤이 되어 달라고 등근달 설에 빛이 반짝인다. 먹고 남은 송눈 아래 북어 터진 누룽지가 가라앉아 있었다.

그것을 보니 옛날 송눈 대접이 잊히지 않고 떠오른다. 초등학교 시절, 대접에 송눈이 반결 이상 들어 있었다. 그 밥알 몇 알을 먹으려고 헛불을 바쳤다. 퍼신 보리밥 알도 그냥 목구멍으로 툭살에 휘쓸려 뱃속으로 진행했다. 지금도 물물은밤을 편하게 먹고 있다. 조리가 다수하고, 구수하고, 탄백하여 깔끔하다. 누룽지만 보던 그때 일생각에 마음이 애처롭다. 다섯 살 나이인데도 정감다려 처럼 어머니와 생활해온 인물이 아스라이 떠오른다. 하지만 어머니 얼굴은 부연 안개다. 늘 슬픈 때나 기쁠 때 생각났다. 장년이 되어서 수소로 끝에 먼 친척으로부터 홀로 촬영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구했다. 처음 보는 순간 어안이빙방했다. 하얀 쿠병 한복을 입고 손을 모아 잠고 단정히 서서 있었다. 그걸 보고 어머니라고 하기에 이상한 정도로 마음속에 어머니와 전혀 달랐다. 젊은 어머니는 날갈 갈은 얼굴에 침착한 표정이었다. 코는 나와 닮지 않았다. 어머니는 비너를 꽃고 머리를 매꾸게 했다. 왼손이 바깥 손등을

가볍게 잡고 왼손 중지에 백옥 반지, 약지에 가락지가 있었다. 그 손이 내 작은 손을 닮은 것 같다. 어머니 친구분이 집친촌에서 함께 지내면서 교생담을 전해줬다. 대가족 살림에 삼시 끼니 챙기는 일도 벅했다고 했다. 손 켈레까지 하면서 잠시 월 톨도 없이 교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품앗이에 발일까지 지냈지못할 정도였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신다. 시집살이 서러움 나 겪는다고 했다. 어머니는 나까지 태어나 고생만 하겠다. 육이오 전쟁 끝날 무렵에 외가댁에 있을 때 어머니가 주신 누룽지 맛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누룽지는 간식 중에서 위생적이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구 최술은 기름칠로 반들반들 윤이 난다. 그 솜에 굵은 식구 밥을 인쳐서 정작불에 밥이 될 때까지 마련된 찰을 준비한다. 다시 불을 살피며 밥이 뜬이 들게 기다린다. 송눈과 아이 간식을 누룽지까지 이팅하여 밥 한 그릇 이상 족하게 술 배딱에 얹겨 불게 했다. 부크에게는 늑음밥을 아이에게는 누룽지를 썰겨 놓는다. 어머니 애정이 녹아 있는 누룽지는 누르스름했다. 어머니가 잊지 않고 내놓는 사랑이다. "최병진 수필가는 2021 '수필 과비평'으로 등단했다. 수필과 비평작가회의, 이람수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필집으로 '돌 항기 어머니', '맹물의 항기'가 있다.

사설

위메프 결국 파산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법원이 결국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 이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4천여대의 미정산·미환불 채권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 후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위메프는 최종 파산했다. 10만 피해자들은 0%의 구제율,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

다"며 "이는 예견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명백한 '사기'였음에도, 사법부는 '법적 원칙'이라는 벽 뒤에 숨었고, 정부는 '민간 기업의 일'이라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결국 국가는 이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작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 넓게는 티메프 50만 피해자를 두 번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일명 '티메프 사태'는 지난해 7월 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계열사였던 티몬과 위메프가 2023년 10월부터 정산 주기를 변경한 이후 2024년 7월까지도 판매자 대금을 지급 및 정산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태다. 티몬은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에 지난 6월 181억원에 인수됐으나 여전히 피해금 변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유튜버 상위 0.1% 연평균 수입

유튜버 가운데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연평균 수입이 약 50억 원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회 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드러났다.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0.1% 해당자의 연평균 수입은 약 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19.2억원에서 2023년 49.3억 원으로 3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신고 인원도 9명에서 24명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2023년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 총수입 1조 7,778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50.4%인 8,963억 원을 상위 10%가 벌

어들였다. 1인 미디어 시장의 수입 몰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수입 증가세를 살펴보면, 2020년 2.8억 원에서 2023년 3.6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은 941명에서 2,467명으로 약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1인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에 대한 과세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 의원은 "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후원금 수취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신고된 공개 계좌만 사용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독자제언

최근 소상공인을 겨냥한 '노쇼(No-Show)'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노쇼' 사기란 주로 음식점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을 사칭한 단체 예약 손님인 척 전화하여 '물건 납품을 받으려 하는데, 사정이 있어 00업체에서 물품을 대신 구입해주면 나중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피해업체에서 주문 및 대금을 지불하면 잠적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업체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위조된 명함, 공문서나 신분증을 내보이는 등 자영

‘노쇼 사기’ 예방, 의심과 확인이 필수

업자들의 눈을 현혹하여 노쇼 범죄를 자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관공서, 군부대, 종합병원 등 관계자로 속여 음식점 등에 단체 주문을 하고 고급 와인 등의 물품을 대리구매 명목으로 구입하게 한 후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등의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리구매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은 업체는 유행 업체이고, 사기

공범이다. 결국 존재하지 않는 유행업체에 주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러한 노쇼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불상자로부터 물건 납품을 빌미로 특정업체에 대신 주문 후 선결제 해줄것을 요구한다면

먼저 의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전화 주문 시에는 반드시 주문자가 속한 회사나 단체에 전화하여 신원이 맞는지, 주문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사전에 예약금을 지급받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혹 시라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최근이고청경찰서모양지구대순경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